

제4주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 금주 학습활동

금주의 주요 학습활동(토론, 과제, 퀴즈 등)을 잊지 않도록 작성해주세요.

M . E . M . O

1. 영어권 학습자의 자음 발음 오류

1)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예상 : 영어에 없는 발음이나 영어에 하나인데 한국어에는 여러 개의 소리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 영어에 비슷한 소리가 있지만 한국어와 조금 발음이 다른 소리 등을 어려워할 것이다.

2) 영어권 학습자들의 대표적 한국어 발음 오류

- (1) 자음 : 평음, 격음, 경음 발음 혼동, /ㄹ/ 발음을 영어의 /r/처럼
- (2) 모음 : /ㅜ/ or /ㅓ/

2. 한국어와 영어 파열음 대조

1) 한국어 파열음

- (1)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 존재(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이 없음.)
- (2) 평음(/ㅂ, ㄷ, ㄱ/)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예: 바보 [pabo])
- (3) 음절말음(받침)은 불과음. 즉 모든 파열음 받침은 기류가 막힌 상태로 발음을 마칩.

2) 영어 파열음

- (1) 무성음, 유성음의 구별 존재(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은 모두 무성음)
- (2) 음절말음은 파열해서 발음해도 되고, 파열시키지 않고 발음해도 됨.

3. 영어권 학습자들의 파열음 발음 오류

- 1) 평음, 격음, 경음 혼동
- 2) 유성음 사이 평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무성음으로 발음(예: 아기 [aki])
- 3) 받침을 파열음으로 발음(예: 국 [구기])

4. 한국어와 영어 파찰음 대조

1) 한국어 파찰음

- (1)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 존재(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 없음.)
- (2) 평음(/ㅈ/)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예: 자주 [tʰadzʌ])
- (3) 한국어 파찰음의 조음 위치는 치경경구개(경구개음이 아님.)

2) 영어 파찰음

- (1) 무성음, 유성음의 구별 존재(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은 모두 무성음)
- (2) 영어 파찰음의 조음 위치 : 치경음(/ts, dz/), 경구개음(/tʃ, dʒ/)

5. 영어권 학습자들의 파찰음 발음 오류

- 1) 평음, 격음, 경음 혼동(예: 저는 [처는])
- 2) 유성음 사이 평음을 무성음으로 발음(예: 자주 [자.추])
- 3) 한국어 파찰음은 치경경구개음인데, 이것을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으로 발음함.

6. 한국어와 영어 마찰음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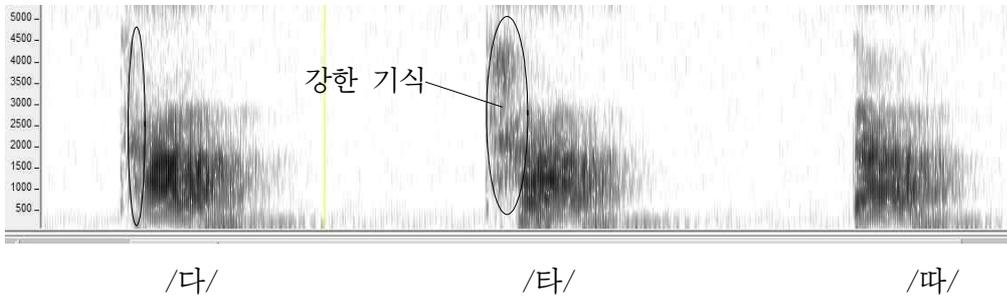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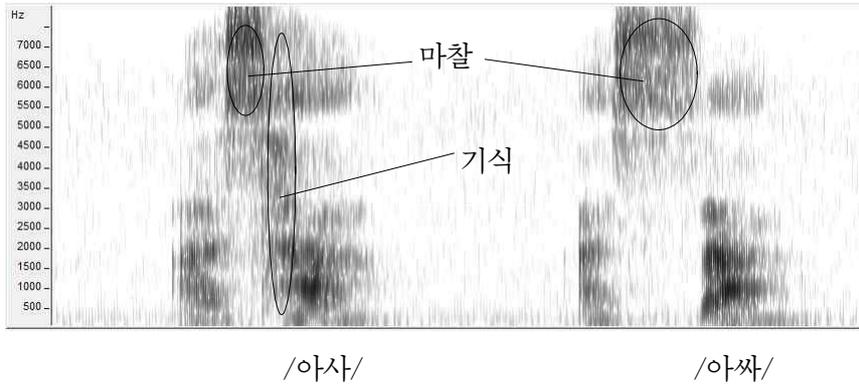
1) 한국어 마찰음

- (1) 한국어 마찰음의 종류 : 치경 마찰음(/ㅅ, ㅆ/), 성문 마찰음(/ㅎ/)
- (2) 치경 마찰음은 평음, 경음의 구별 존재(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 없음.)
- (3) 치경 마찰음 중 평음(/ㅅ/)은 음운론적으로는 평음이나 음성적으로는 격음의 특성
 - /ㅅ/가 음운론적으로는 평음 : 다른 평음과 마찬가지로 경음화 현상(/ㅆ, ㅅ, ㅆ/ 뒤에 오는 평음이 모두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겪음.(예: 먹

4주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소 [먹쏘], 먹고 [먹꼬]

- /ㅅ/가 음성적으로는 격음 : /ㅅ/는 파열음의 격음처럼 기식성을 가짐.



(4) 치경 마찰음의 조음 위치 : 대부분이 경우 치경음으로 발음되지만 모음 /ㅣ/나 활음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앞에서는 치경경구개음으로 발음 됨.(예: /스/는 치경음, /시/는 치경경구개음)

2) 영어 마찰음

- (1) 영어 마찰음의 종류 ; 순치 마찰음(/f, v/), 치간 마찰음(/θ, ð/), 치경 마찰음(/s, z/), 경구개 마찰음(/ʃ, ʒ/), 성문 마찰음(/h/)
- (2)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 존재(한국어 평음, 경음은 모두 무성음)
- (3) 한국어의 치경 마찰음과 유사한 조음 위치를 가진 영어 마찰음 : 치경 마찰음(/s, z/), 경구개 마찰음(/ʃ, ʒ/)

7. 영어권 학습자들의 마찰음 발음 오류

- 1) 치경 마찰음의 평음, 경음 혼동(예: 사랑 [싸랑])
- 2) ‘시’ 나 ‘씨’ (치경경구개음)를 ‘see’ (치경음)나 ‘she’ (경구개음) 처럼 발음

8. 한국어와 영어 비음의 대조

- 1) 한국어 비음은 어중에 겹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음.(예: 엄마, 언니)
- 2) 영어 비음은 어중에 겹자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음.(예: Madonna [mədɑ:nə])

9. 영어권 학습자들의 비음 발음 오류

- 1) 어중 겹자음을 단자음으로 발음(예: 엄마 [어마], 언니 [어니])

10. 한국어와 영어 유음의 대조

1) 한국어 유음

- (1) 음운론적으로 1개의 자음 /ㄹ/ 존재
- (2) 음성적으로 크게 두 개의 변이음 존재
 - 음절초성 : 탄설음(예: 우리 나라 [uri nara])
 - 음절말음 : 설측음(예: 달 [dal])
- (3) 어중 겹자음 존재(예: 빨리 [p'alli])

2) 영어 유음

- (1) 음운론적으로 2개의 자음(권설음 /r/, 설측음 /l/) 존재
- (2) 어중 겹자음 없음.(holly [holi])

11. 영어권 학습자들의 유음 발음 오류

- 1) 음절초성의 탄설음을 권설음으로 발음(예: 우리 나라 [uri nara])
- 2) 어중 겹자음을 단자음으로 발음(예: 빨리 [p'ali])

12. 영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발음 오류 정리

- 1) 평음, 격음, 경음 혼동 : 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이 영어에서는 모두 무성음
- 2) 어중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 한국어에 평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음성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4주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 3) 받침을 파열음으로 : 한국어 받침은 기류를 막은 상태로 발음을 끝내야 하나 영어의 경우에는 음절말 자음을 파열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
- 4) 치경경구개음을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으로 : 한국어 파찰음과 /시, 씨/처럼 /l/ 모음 앞의 치경 마찰음이 치경경구개음으로 발음해야 하나 영어에는 치경경구개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 5) 어중 겹자음을 단자음으로 : 한국어 비음이나 유음은 어중에 겹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으나 영어에는 어중 겹자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 6) 음절초성 /ㄹ/를 /r/로 : 한국어 유음이 음절초성일 때는 탄설음 [r]로 발음되나 이 소리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음.

13. 영어권 학습자의 자음 발음 지도 방안

1) 평음, 격음, 경음을 혼동하는 경우 : 영어의 변이음 활용, 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의 조음법 설명

- (1) 평음, 격음, 경음의 조음방법 차이는 성대를 벌리는 정도(평음은 보통 넓이, 격음은 매우 넓게, 경음은 좁게)에 있다. 그러나 성대를 벌리는 정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음 방법의 차이를 활용해서 교육하기 어려움.
- (2) 영어의 파열음에도 변이음이 존재하는데, 그 음이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과 유

2) 어중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 한국어 변이음 설명

- (1) 한국어 평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함.

3) 받침을 파열음으로 : 한국어 받침의 특성 설명

- (1) 한국어 받침 발음이 불과음, 즉 기류를 막은 상태로 발음을 마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

4) 치경경구개음을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으로 : 한국어 치경경구개음의 조음법 설명

- (1) 한국어 파찰음의 조음위치가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이 아니라 치경경구개음이라는 것을 설명함.

- (2) 한국어 마찰음 중에서 /l/ 모음이나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앞에 오는 마찰음의 조음위치가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이 아니라 치경경구개음이라는 것을 설명함.

5) 어중 겹자음을 단자음으로 : 겹자음의 존재 설명

- (1) 한국어에는 비음과 유음이 어중에 겹쳐서 나올 때 겹자음으로 발음한다는 것, 즉 기류를 막는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을 설명함.

6) 음절초성 /ㄹ/를 /r/로 : 영어의 변이음 활용

- (1) 한국어의 /ㄹ/이 음절초성에서는 /r/이 아니라 탄설음 /r/로 발음되는데, 영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음이 존재한다. 즉 water를 발음할 때 [워터]가 아니라 [워러]로 발음하는데 이때 /t/의 변이음이 [r]라는 것을 이용해 발음하도록 함.

14. 평음, 격음, 경음 지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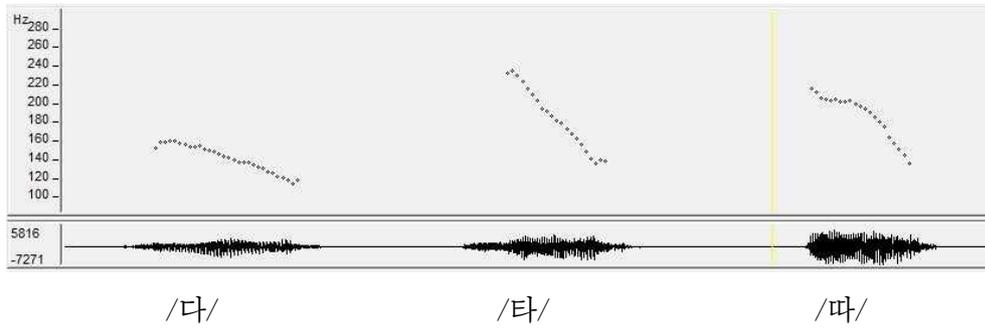
1) 영어의 변이음을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에 대응시킴.

- (1) 영어의 무성음은 보통 한국인에게 격음으로 인식(예: topic [토픽]) ; ‘탈’ 을 할 때는 영어 /t/로 발음하도록 한다.
- (2) 영어의 어두 유성음은 보통 한국인에게 평음으로 인식(예: day [데이]). 영어의 유성음은 어두에서 무성화되는 특성이 있어서 한국어 평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님. : ‘달’ 을 발음할 때는 영어 /d/로 발음하도록 한다.
- (3) 영어의 /s/ 뒤에 오는 무성음은 보통 한국인에게 경음으로 인식(star [스타]) : ‘딸’ 을 발음할 때는 앞에 /s/가 있다고 생각하고 /s/를 마음속으로 발음하고 이어서 /t/를 발음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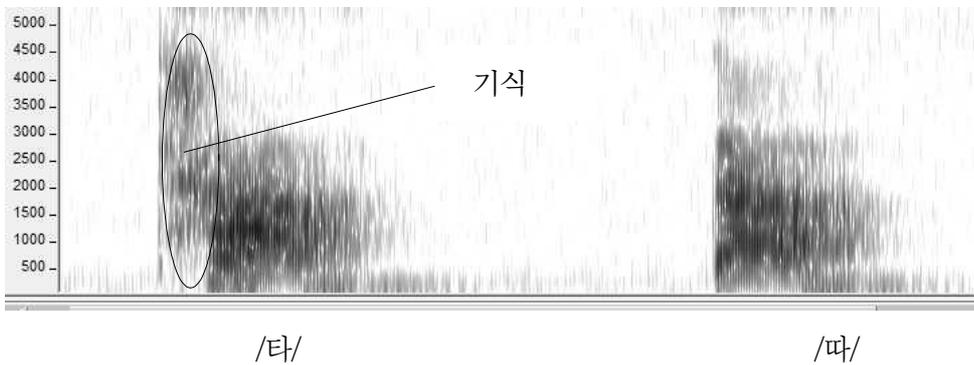
2) 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의 정확한 조음법에 대한 훈련도 필요함.

- (1) 후행 모음의 음높이로 평음과 격경음 구별 : 평음 low tone, 격음경음 high 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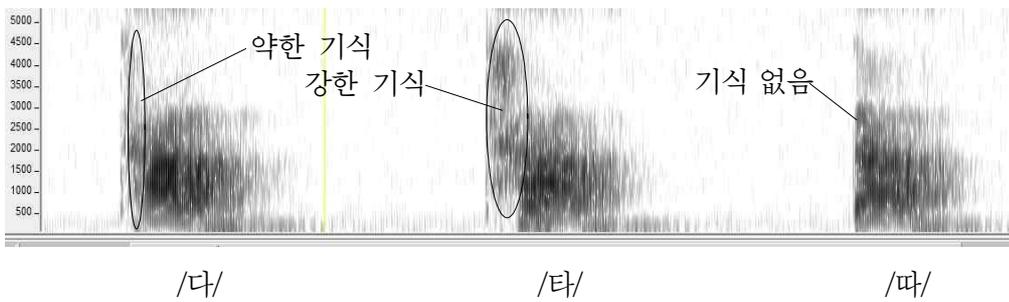
4주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2) 기식의 유무로 격음과 경음 구별



(3) 기식의 양으로 평음, 격음, 경음 구별 : 얇은 티슈를 입 앞에 대고 발음을 해 보면 기식 양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



15. 음절초성 /ㄹ/ 발음 지도 방법

- 1) 영어의 변이음 중에서 한국어의 음절초성 /ㄹ/과 같은 탄설음 존재 : 미국 영어에서 water, ladder와 같이 모음 사이 /t, d/는 탄설음으로 발음
- 2) 한국어 음절초성 /ㄹ/를 발음할 때는 영어의 모음 사이 /t, d/의 변이음처럼 발음하도록 지도함.(예: /우리/를 /udi/라고 생각하고 발음하면 탄설음

화 규칙이 적용되어 [uri]로 발음됨.)

16. 영어와 한국어의 모음 발음 대조

1) 영어에 없는 한국어 모음

- (1) 단모음 : ㅓ, ㅡ (영어의 /ʌ/는 한국어의 /ㅓ/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조금 더 앞쪽에서 발음된다.)
- (2) 이중모음 : ㅑ, ㅕ, ㅛ

2) 영어의 음가와 다른 모음

- (1) 원순모음 : ㅜ, ㅠ (한국어 /ㅜ, ㅠ/는 영어의 /o, u/보다 훨씬 강한 원순성을 가지고 있음.)

17. 영어권 학습자들의 모음 발음 오류

- 1) /ㅓ/와 /ㅛ/의 혼동(예: 그래서 [그래소])
- 2) /ㅡ/와 /ㅠ/의 혼동(예: 그래서 [구래서])
- 3) /ㅑ/와 /ㅛ/의 혼동(예: 경주 [공주])
- 4) /ㅕ/를 /ㅛ/처럼 발음(예: 회사원 [회사완])
- 5) /ㅓ/를 /ㅕ/처럼 발음(예: 의사 [위사])

18. 영어권 학습자들의 모음 발음 지도 방법

1) /ㅓ/와 /ㅛ/의 혼동 : /ㅓ/와 /ㅛ/의 조음법 설명

- (1) 한국어 /ㅓ/와 /ㅛ/는 모두 혀뿌리를 뒤로 당겨서 발음하는 후설모음이다. 혀뿌리를 뒤로 당기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ㅛ/를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면서 내밀기 때문에 /ㅓ/보다 /ㅛ/가 더 안쪽에서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준다.
- (2) /ㅛ/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확실하게 동그랗게 모은 채로 발음하도록 지도하고, /ㅓ/를 발음할 때는 입술이 조금이라도 오므러지면 안 된다고 지도한다.
- (3) 영어에 /ㅓ/ 모음이 없기 때문에 영어권 학습자들은 /ㅓ/를 영어의 /o/나 /ɔ/처럼 발음하는데, 두 모음 다 원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인에

4주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게는 /ɹ/를 발음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니 영어의 /ʌ/나 /ɔ/를 생각하면서 발음하지 말고 차라리 /ɑ/를 생각하고 발음하는 것이 더 낫다. /ɑ/를 발음하되 턱을 조금만 올려서 입을 조금 닫은 상태로 발음하면 한국어 /ɹ/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 될 수 있다.

2) /ɹ/ 와 /ɻ/의 혼동 : /ɹ/와 /ɻ/의 조음법 설명

- (1) 한국어 /ɹ/와 /ɻ/도 혀뿌리를 뒤로 당겨서 발음하는 후설모음이다. 혀뿌리를 뒤로 당기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ɻ/를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면서 내밀기 때문에 /ɹ/보다 /ɻ/가 더 안에서 발음된다는 인상을 준다.
- (2) /ɻ/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확실하게 동그랗게 모은 채로 쪽 내밀면서 발음하도록 지도하고, /ɹ/를 발음할 때는 입술이 조금이라도 오므려지면 안 되고 양쪽의 입 꼬리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듯이 발음하면 된다고 지도한다.
- (3) 간혹 /ɹ/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을 ‘ㅡ’ 라는 글자 모양처럼 만들어서, 즉 입을 옆으로 가늘게 찢으면서 발음하라고 지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ɿ/를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이고, /ɹ/를 발음할 때는 입 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징그러운 것을 봤을 때 ‘으’ 할 때의 입 모양)이 된다.

3) /ɹ/와 /ɻ/의 혼동 : /ɹ/와 /ɹ/의 조음법 설명

- (1) /ɹ/와 /ɻ/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모음 /ɹ/와 /ɹ/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ɹ/와 /ɹ/를 구별하도록 하면 /ɹ/와 /ɻ/의 발음도 가능해진다.

4) /ɹ/를 /ɹ/처럼 : /ɹ/의 조음법 설명

- (1) 영어권 학생들이 /ɹ/를 영어의 /ʌ/나 /ɔ/ 발음처럼 하기 때문에 /ɹ/ 발음을 [wʌ] 혹은 [wɔ]로 발음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저모음인 /ɹ/와 결합한 이중모음 [ɹɹ]처럼 들리게 된다. 영어권 학생들이 한국어 /ɹ/ 발음을 정확히 한다면 /ɹ/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ɹ/를 /ɹ/처럼 : /ɹ/의 조음법 설명

- (1) /ɹ/는 활음 /ɹ/와 모음 /i/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인데, 활음

/ㅌ/는 모음 /ㅡ/와 동일한 음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어권 학생들이 이중모음 /ㄱㅡ/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단모음 /ㅡ/를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권 학생들에게 한국어 단모음 /ㅡ/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중모음 /ㄱㅡ/의 발음도 가능해질 것이다.